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

박 태 일*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한글 문학과 부왜활동 |
| 2. 경남지역의 근대와 부왜 | 5. 한문 문학과 부왜활동 |
| 3. 일어 문학과 부왜활동 | 6. 마무리 |

1. 들머리

지역문학은 지연문학이다. 지역에 대한 친밀경험과 사랑을 문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일이다. 50년 남짓한 기간에 머무는 우리 근대문학 연구의 역사 속에서도 지역문학은 제대로 된 연구 자리에 놓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근대 성찰의 새로운 기운 아래 지역문학을 제대로 된 연구 영역으로 끌어안는 일은 많은 보람과 성과를 내다보게 한다. 적어도 서울 중심·국가 중심의 획일화되고 추상화된 문학 현실과 그 연구 성과가 펼쳐놓은 미망을 가로지를 수 있는 혁신의 자리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역자치라는 행정 조건의 변화가 이루어진지 10년이 된 오늘에 이르러서도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환경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역문학의 실상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의심스러운 이들이 지역사회를 상대로 이들을 내돌리면서 지역문학에 대한 시민교양의 수준을 왜곡시키는 일이 한 둘은

*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아니다. 본 데가 없으니 아는 바가 없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 쓸모 있는 말을 담 아낼 까닭이 없다.

이런 속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은 더욱 키워지고, 더 찾아 들어서야 될 일은 마냥 잊혀져 간다. 대중적 명성은 문학사적 명성으로 굳어지고, 사실은 한결 부 풀려져서 인물 신화로 굳어지기도 한다. 이즈음 국회 한 쪽에서 공개되었던 ‘일 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 명단’도 지역 차원에서 보면 그 범위나 대상이 실상 에 한참 못 미친다. 예술·문화 쪽에서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경남지역 사람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썩 다행스럽다 할 지 모르나,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셈이다.

경남 지역문학의 부왜활동에 대해서는 이제껏 본래 있게 다루어지지 못 했 다. 개별 작가의 활동이나 단편적인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진 쪽이다. 그것도 창녕 출신 임종국의 각고¹⁾에 도움 받은 바가 절대적이다. 그의 조사와 연구만 으로도 경남 지역문인의 부왜활동은 많은 부분 확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종 국의 것 뿐 아니라, 그 뒤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업적도 모두 한정된 자료에 기대어 이루어진 일이다. 게다가 지역문학 시각에서 다루어진 바도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빠지고 지나쳐버린 사실이 뜻밖에 많다.²⁾

이 글은 이제까지 확인·연구, 문제되었거나 새로 찾아낸 사실을 중심으로 경남의 부왜문학 활동과 작품에 대한 큰 틀거리를 그려보고자 하는 목표 아래 씌어진다. 더 깊어진 연구를 위한 디딤돌이 시급한 까닭이다.³⁾ 이 일을 위해 문 학작품의 가장 중요한 터무니라 할 수 있는 표기언어의 문제를 앞세웠다. 첫째 일본어, 이른바 ‘국어’로 이루어진 부왜문학, 둘째 한글, 이른바 ‘조선어’·‘언문’으 로 이루어진 부왜문학, 셋째 한문으로 이루어진 부왜문학으로 나누어 살펴졌다.

1) 임종국, 『親日文學論』, 평화출판사, 1966.

2) 아직까지 경남지역의 부왜문학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리 보면 당연한 일이다. 마흔 해나 앞서 임종국이 문제 제기했던 사실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 만하다.

3) 이 글은 2002년 4월 11일 경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제1회쟁점학술 토론회에서 한 차례 발표했다. 발표의 뜻과 달리 기술에 있어서 일반인의 감각 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나, 단편적인 사항에 이름이 올라 부왜활동으로 놓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 글쓴이의 것은 뻘었다. 주요 작가 중심으로 글을 다듬은 셈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해당 작가나 내용에 대한 더 꼼꼼하고 깊은 논의는 따로 차례를 좇아 이어질 것이다.

2. 경남지역의 근대와 부왜

부왜인(附倭人), 또는 부왜배(附倭輩)는 흔히 '친일파'라는 이름⁴⁾으로 일컬어져 왔던 이들이다. 우리의 근대, 곧 국권회복기나 나라잃는시기 동안 제 이익을 위하여, 왜로에 빌붙어 겨레에게 남다른 해코지를 했던 사람을 뜻한다. 거기에는 이른바 조선총독부의 고위 관리나 조선귀족, 법조인, 군경·밀정, 언론·출판계나 예술·문화계의 유력인사, 재력가·유명 실업인, 종교계·학계의 주요인사, 부왜지주와 같은 이들 들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이런 부왜인은 나라잃은시대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왜로제국

- 4) 역사용어는 제 나라 잘 되는 길로 붙이는 일방통행어이다. 수학 기호가 될 수 있는대로 만국공통어로 나아가고자 하나, 역사용어는 그렇지 않다. 나라 구성원들이 제 나라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큰 생각, 곧 이데올로기를 담은 것이다. 모두 한 가지인 역사적 사건, 1945년 8월 15일의 일을 두고, 우리가 '광복절'이라 기쁨을 담아 일컫는 것과 달리, 일본은 '패전수치일'이라 분을 삼키는 용어로 일컫는 것은 이 이치에 따른 일이다. 우리에게 대한 침략 사실을 숨긴 일본 쪽 용어인 '한일합방'과 우리쪽 용어인 '경술국치' 또한 마찬가지다. 일찍이 우리의 역사 용어 일컫는 '합방'에 관련된 여러 문제⁵⁾에 대하여서 '경술국치'에서 큰 틀과 씨부까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학계나 주류 사회에서는 이를 아예 문제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생각없이 씌어지고 있는 역사용어에 대한 헤아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친일파'는 하루마베 고쳐야 될 역사용어 가운데 하나다. 굳이 입에 익은 '친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부왜'로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이제 50년을 겨우 넘긴 광복기 이후 극히 짧은 시기 동안 굳어진 일컫음인 '친일'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장차 우리 겨레가 가꾸어나갈 먼 뒷날을 생각하여 바로 고쳐져야 될 일이다. 작은 보기이긴 하지만, '국민'학교라는 말을 '초등'학교라 고쳐낸 일이 이미 있었다. '친일'에서 '친(親)'이라는 글자는 언제나 마땅한 뜻이나 관계에 씌어진 글자다. '부자유친', '친척'과 같은 경우다. 모름지기 '친일'이란 '친한'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 가꾸어나갈 아름다운 덕목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1945년에 걸치는 근대시기 일본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짓밟고 빼앗았다. 그러니 그런 오랑캐 짓을 한 나라에게 '일본'이라 온당한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선인들이 일찍부터 분을 보여준대로 '왜'라 일컫음이 옳다. 그리고 이 시기 그 '왜인'에 붙어 제 이익을 얻고자 했던 이들은 마땅히 '부왜인'이 되는 것이다. 굳이 '친일'이라는 이름을 고집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자 하는 특정 세력이나 힘의 이념작용이 드러난 바다. 우리 사회 깊숙히 남아 있는 왜로제국주의 쓰레기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 려중등, 『한국역사용어』, 시사문화사, 1986, 36~40쪽.

주의자들이 대륙침략전쟁을 벌인 1937년 이후, 식민지 한국을 ‘전시동원체제’로 이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획책했던 무렵부터, 1941년 태평양침략전쟁을 거쳐 1945년 패망에 이르기까지 시기다. 이른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앞세우며 ‘대동아공영’이라는 거짓된 목표를 향해 피식민자 한국인에 대한 ‘국민정신총동원’과 ‘국민총력’을 강요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근대 부왜인의 뿌리는 한참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1864년 병자갑약을 앞뒤로 한 시기부터 1994년 갑오역변과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는 국권회복기를 거쳐, 1920년대와 1930년대 나라잃은 시기로 넘어들면서 여러 영역, 여러 방식, 여러 지역에서 부왜인은 준동했다.

각별히 조선말기 부왜집권층이나, 왜로도 ‘國民運動の先驅’⁵⁾라 치켜세웠던 일진회원들과 같이 국치를 앞뒤로 한 시기 매국노나 ‘조선귀족’이라는 허울을 덮어썼던 부왜인의 모습은 여러 인명록⁶⁾에 쉽게 그 실체를 엿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 고위관리의 경우는 거듭되어 나왔던 ‘직원록’⁷⁾이나 각도에서 냈던 ‘職員, 公職者 團體役職員 名簿’와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조사가 모자란다고 하여, 부왜 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다. 그들에 대한 발빠른 조사·연구는 한국 근대형성의 성격이나 지배층의 행태 규명뿐 아니라, 겨레의 미래상과도 맞닿아 있는 일이다.

부왜활동 가운데서 주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왜문학 또한 마찬가지다. 국권회복기의 집권 관료나 불교계·유림에서 남겨놓은 부왜문자들은 아직까지 접근이 되고 있지 않다.⁸⁾ 한글문학에서도 이인직의 소설에서부터 근대가

5) 三田芳夫 엮음,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國民總力運動聯盟, 1945, 1쪽.

6) 『朝鮮紳士寶鑑』, 조선문우회, 1914.

『朝鮮紳士大同譜』, 조선신사대동보발행사무소, 1913.

『朝鮮紳士錄』, 조선신사록간행회, 1931.

7)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조선총독부, 1937.

8) 이완용이 죽은 뒤, 어지러운 청송의 말로 책장을 도배질하며 세상에 돌렸던 『一堂紀事』나, 김윤식의 『雲囊集』과 같은, 매국노들의 문집에 실린 작품이 있다. 이른바 조선총독부 돌레를 기웃거렸던 아첨문인들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일이다. 대표적인 부왜 실업인이자 ‘황도학회’ 회장이었던 문명기의 회갑년과 송덕비에다 청송의 한시문을 기꺼이 올려바쳤던 이의 것도 또한 물어버릴 일이 아니다. 성균관을 뜯어고쳐 만든 ‘경학원’의 『經學院 雜誌』에다 작품을 올린 유교인사의 한 시문도 부왜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살펴져야 할 것이다.

김명식 엮음, 『一堂紀事』, 일당기사출판소, 1927.

시⁹⁾, 수필, 논설 모두에 걸쳐 제대로 찾아내고 간추려두어야 한다. 기미만세의 거 뒤, 거짓 문화책략에 따라 분열된 민족진영의 변질, 1931년 중국 동북상성을 향한 왜로의 침략과 그에 따른 '치안유지'를 위해 이루어졌던 사회주의·민족진영 인사에 대한 '전향공작'은 이미 1940년대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문학 안쪽에서도 부왜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1937년 중국침략에 들어선 뒤, '국민총동원령'이 강제되면서 우리 문학이 놓였던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¹⁰⁾ 1941년 1월부터는 검열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국책'에 따르는 일만이 유일한 생존방식이 되기 시작했던 사정은 잘 알려진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긴 시기 동안 여러 방식, 여러 조건 아래서 발표되고 이루어졌던 문학활동 가운데서 부왜작품과 부왜활동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고려되어야 할 조건항이 한 둘에 그치지 않는다. 첫째, 표기언어를 어느 것으로 삼았느냐 하는 점이 그 하나가 된다. 한글인가 한문인가, 일어인가가 문제다. 이때 일어, 곧 '국어'를 끌어낸 경우, 그것도 1940년대 '국어상용' 책략과 맞물릴 때는 부왜문학의 한 조건이 됨직하다. 둘째, 문학 양식에서 왜로의 것을 본뜨거나 즐겨 창작했는가도 한 조건이 된다. '배구'나 '단가'와 같은 것을 따른 경우 부왜작품일 개연성은 그만큼 짙어지는 셈이다. 셋째, 작품의 내용·주제 문제다. 저들의 '사상공작'에 따라 이른바 '내선일체'나 '황민화'를 부추기는 내용, 그들의 식민책략이나 '전시동원체제'를 미화하는 내용, 또는 '대동아공영권'의 원질로서 '일본정신'을 좇고자 하는 뜻을 담은 것은 시기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왜작품에 들 것이다.

넷째, 작품이 실린 매체의 성격도 한 조건이 된다. 나올 때부터 왜로제국주의 책략에 맞장구를 치거나, 그것의 선전·선동을 위해 마련된 매체에 실린 글은 부왜작품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그러한 매체는 걸로 매체의 됨됨이를 쭈

『雲巖壽帖』자가본, 1938.

- 9) 부왜유립단체 '조선유교회'의 기관지 『日月時報』에 실린 가사들이나, 1930년대 황해도 재령군수를 지낸 바 있는 신익균이 쓴 「青年歌」, 「自力更生歌」와 같은 개인의 것들이 한 본보기가 됨직하다.
신익균, 『戀松集』, 자가본, 1936, 42~43쪽.
- 10) 이 시기 왜로제국주의자들의 식민책략과 그 전개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꼼꼼하게 다루어졌다.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研究』, 국학자료원, 1997.

렸이 하고 있었다. 거기에 글을 실는다는 것이 어떤 뜻을 지닐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글을 신고자 했던 작가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40년대 신문으로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每日新報』와 『京城日報』, 『每新 寫眞旬報』, 『愛國班』과 같은 것이 맨 앞자리에 올라선다. 종합지로는 일찌감치 경학원에서 냈던 『經學院雜誌』부터, 『시천교월보』, 『斯文學』, ‘조선유교연합회’에서 낸 『儒道』와 같은 것은 빠트릴 수 없다. 1940년대 들어서는 이른바 “內鮮一體의 實踐 強化를 目標”로 부왜인 박희도가 냈던 월간 『東洋之光』이 있다. 처음부터 부왜 빛깔을 뚜렷이 내걸고 1941년에 출발한 『新時代』, 조선인 필자 중심의 종합지로 출발한 『春秋』, 김동환이 낸 『三千里』를 이은 『大東亞』, 1940년대의 『朝光』, ‘국민총력 조선연맹’에서 낸 『國民總力』, 이른바 ‘銃後’ 경제지원에 핵심적인 구실을 맡았던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半島之光』 ‘언문판’들이 있다. 문예지로서는 1941년 이른바 ‘국민시가연맹’에서 낸 『國民詩歌』, 1941년 최재서가 낸 『國民文學』이 손꼽힌다.¹¹⁾

다섯째, 뚜렷한 사회 활동이나 공개 입장 표명도 주요한 조건항이다. 작품 활동은 없었지만, 부왜체제가 뚜렷한 강연회나 관련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부왜 입장을 말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에는 그 활동의 강도나 빈도, 활동 기간의 장단을 마땅히 문제 삼아야 할 일이다. 여섯째, 부왜작품과 부왜문인 또는 부왜인은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왜작품을 남겼다 해서, 당사자를 부왜문인으로 낙인찍을 수는 없다. 왜로들의 흑독했던 ‘思想犯豫防拘禁’을 부드럽게 벗어나기 위해 피를 내거나, 연줄망을 활용해 소극적인 뜻의 부왜를 꾸미는 경우도 가능한 일이다. 문학사에서 궁극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인 아무개가 아니라 내포작가로서, 세상에 명성으로 굳어진 작가상이다. 따라서 특정 시기의 특정 작품 몇 편을 가지고 그의 삶을 온통 규정짓는 일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우리 근대의 강파른 시대 상황이 선택과 처신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현실에서 애써 몸을 돌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사실을 숨기거나, 특

11) 아래 글에서 이른바 ‘국어상용령’에 따라 만들어진 부왜대체들의 면모에 대한 가벼운 소개가 이루어졌다.

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211~214쪽

布袋敏搏,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의 서지학적 연구』, 『文學思想』, 4월호, 1996, 59쪽.

정 집단의 의도에 따라 인물 신화를 조작하는 일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활용될 경우이다.

일곱째, 사실과 그 해석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를 조정하는 일에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역사에는 사실로서 역사와 해석으로서 역사라는 두 계기가 있다. 그러나 사실 자체도 해석의 방법에 따라 선택/배제의 과정을 겪는다. 거꾸로 해석 또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선택된 기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말하자면 텍스트의 역사성과 역사의 텍스트성 사이에 가로놓인 개방적인 성찰 과정에다 부왜문학과 부왜문인을 놓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살핀 바 조건항은 모두 일곱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같은 무게로, 같은 자리에서 쪼 다뤄어져야 될 일은 아니다. 다만 이들을 중층적·복합적으로 꼼꼼하게 고려한 뒤, 해당 작품이나 작가가 놓인 자리나 그 성격 규명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 거듭하거니와 부왜 빛깔이 짙은 작품 한 둘이 보이거나, 위에 든 조건항 한 둘에 든다고 해당 작가의 문학적 생애 모두를 부왜로 몰아부치는 태도는 위험스럽다. 걸음마 단계를 시작한 경남의 지역문학 연구 현황으로 볼 때, 무엇보다 부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발굴과 정리가 더욱 긴요하게 여겨지는 바다.

3. 일어 문학과 부왜활동

해당 작품에 대한 부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그것이 일어를 사용한 작품인가 아닌가 하는, 표기문자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 근대문학이 거처온 운명적인 일이다. 일어로 씌어졌으면서, 작품 내용에서 부왜를 부추기는 내용이라면 영락없는 부왜 판단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나라잃은시기 내내 일어의 언어능력은 식민지 교육에서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자리에 있었던 까닭이다. 거기다 한문이 거들고, 한글은 걸다리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따라서 이 시기 제도 교육을 받았던 식민지 엘리트층의 학습 활동이나 과외 활동에 있어서 일어로 된 글쓰기와 작품 창작은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겨레에 크게 해악을 끼치는 일로 자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일문 작

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부왜작품이라는 혐의를 두기 어려운 까닭이다.¹²⁾

저제의 시조시인 김기호나 진주의 소설가 김성봉, 동래 출신의 박차정 열사 경우도 재학시 일문으로 된 습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들이 부왜적인 빗발과 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어’ 표기를 따랐다고 해서 부왜작품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1940년대 한글에 대한 사용이 억압되고, 이른바 ‘국어상용’을 한껏 강제하였을 때, 한글 표기를 버리고 일어를 표기매체로 끌어들이며, 거기다 내용까지 부왜적인 것을 담았다면 부왜 판단에 거리낌이 있을 수 없다.

일문 작품¹³⁾을 남긴 경남지역 문학인은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른바 ‘내지’ 곧 일본문단에서 작품 활동을 한 이와, ‘조선문단’ 곧 나라 안에서 작품 활동을 한 경우다.¹⁴⁾ 그 가운데서 1941년 일본대학에 들어가 잠깐 머문 바

12) 진주교육대학, 곧 ‘경상남도공립사범학교’ 교우회에서 1925년에 낸 『飛鳳之緣』 1집에는 글을 실은 이 모두가 일어로 작품을 쓰고 있다. 비슷한 경우로 1929년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교우회’에서 낸 『교우회보』 7집의 경우에는 글쓴이 65명 가운데서 10명만 한글로 작품을 쓰고 있다. 말하자면 나라잃은시기 내내 각급 학교 창작과 작문의 중심 언어는 일어였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에 억어 있었던 이들이 졸업 뒤, 기성 문단에 나가 ‘국어’를 쓴 창작이나, ‘내지문단’ 활동에 대해 크게 거리낌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13) 아래와 같은 책에서 1945년 광복 앞까지에 발표된 일문, 곧 국어로 된 문학작품이 간추려졌다.

大村益夫·任展慧 編,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 プリントピア, 1984.

任展慧, 『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學の歴史』, 법정대학출판국, 1994.

布袋敏搏, 앞서 든 글.

大村益夫·布袋敏搏,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 綠陰書房, 1997.

그러나 이들 죽보기에서 빠진 것들이 뜻밖에도 많다. 보다 잘 된 죽보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大村益夫·任展慧의 것은 분학과비평사에서 한 번 뒤엎겨 널리 알렸고, 경남 지역문학과 관련된 문헌은 大村益夫·布袋敏搏의 것에 힘입어, 이장렬이 따로 간추려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일본어로 표기된 한국인 작품목록(1)·(2)』, 『분학과비평』 가을·겨울호, 문학과비평사, 1990.

이장렬, 『일문으로 된 한국근대문학 경남문학인의 문헌 죽보기』, 『지역문학연구』 7호, 경남지역문화회, 2001.

14) 그 가운데서 일본문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이는 진주의 김병호다. 1925년 진주교대를 졸업한 뒤, 김해 가락과 진주로 옮겨다니며 초년 교직생활을 할 무렵이다. 초기 경남 계급주의시의 성향을 잘 보여주었던 시인이다. 밀양 출신으로 카프 동경지부 산하 ‘동지사’의 결성 위원이자, 카프의 조선협의회회의 의장으로 일하며, 기관지 『우리동무』의 편집을 맡기도 했던 시인이 박석정이다. 1936년

있는 조항은 경남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1940년 10월부터 『日本詩壇』과 『詩文學研究』에 18번 이상 작품을 실고 있다.¹⁵⁾ 그 무렵 시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스산한 풍경화가 대부분이다. 소설에서는 밀양의 표문태가 1937년 섬나라로 건너가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작가사'에 입사한 뒤, 문예동인지 『작가』, 『군성』에 발표한 작품이 그것이다. 현재로서는 작품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영의 박재성이 한국의 농촌 현실을 뛰어나게 그린 사실극 『晚秋』를 『赤門文學』에 실어 문제를 뽐냈던 때가 1942년 5월이었다.

이른바 '국민총력운동'이 획책되었던 시기에 일문으로 된 작품을 일본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들의 작품에 대한 부왜 규정에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이 부왜적 빛깔과 거리가 있다고 해도, 문학적 기개와 사뭇 모자랐던 점만은 짚어 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표문태의 경우에는 1941년 밀양으로 돌아와 있다, 1943년에는 이른바 조선총독부 기관지 『每日新報』 기자로 활동하였다. 거기에 몸을 의탁한 앞뒤 사정은 두고서라도, 드러난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부왜 언론 활동의 혐의를 벗기 힘들게 되었다.

이들과 달리 일문으로 창작하되, 나라 안에서 문단 활동을 했던 한 무리의 문인이 있다. 비평 영역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함안의 조연현이다. 왜로식으로 갈아치운 이름이 德田演鉉이었다. 그는 1942년 무렵부터 『東洋之光』 학생란에 시를 발표한 뒤, 이어서 평론을 내놓기 시작했다. 6월에는 「國民文學과 東洋之光」을, 1943년 10월에는 「文壇現地報告」를 실었다. 10월에는 『文化朝鮮』에 「評團의 一年」을 올려 부왜 빛깔이 드높은 글을 발표하고 있는 셈이다.¹⁶⁾ 조연현

나라 안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그도 시와 산문을 일문으로 발표했는데, 여러 작품이 묻혀버렸다. 김병호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경수가 '채일조선인사'를 다룬 연구에서 그의 일문시를 찾아 성격을 규명한 것이 처음이다. 박석정과 관련된 논의는 차민기의 글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박경수, 「일제 강점기 채일 한국인의 일어서에 나타난 민족적 정체성」, 『우리말 글』 21집, 우리말글학회, 2001, 26~27쪽.

차민기, 「박석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 7집, 경남지역문화회.

- 15)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경수의 앞선 글을 참조 바란다. 그는 조항의 고향 회고적 서정을 '소극적인 민족적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수, 앞서 든 글, 233~335쪽.

- 16) 조연현의 부왜문제는 아래 글에서 한차례 짚었다.

김철, 「순수의 정체 - 붓과 칼의 일치」, 『청산하지 못한 역사』, 청년사, 1994.

이 신세대 문학인으로서 젊은 나이로 부왜의 길에 나섰다면, 언양의 정인섭은 차근차근 부왜문학을 준비한 경우다.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었던 그는 신교승과 한 마을에서 자란 사이이다. 비록 문학에 대한 믿음과 나아간 길이 매우 달랐지만, 1940년대 어려운 자리를 산 모습은 비슷하다. 정인섭, 곧 東原寅燮은 1939년 조선문인보 국회 발기인으로 김소운과 함께 나섰다. “내선일체의 실천을 위하여 일본정신을 깨닫고, 황도를 받잡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皇道學會’에서는 이사로 들어서, 자리를 지켰다. 그는 1940년 ‘문예보국강연회’ 전국 순례를, 1941년에는 ‘결전문화강연회’에 출연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보고·좌담회에 참석하고, 순례기까지 남김으로써, 활발했던 부왜문인으로 꼽아 손색이 없을 활동을 보여준다.¹⁷⁾

소설 쪽에서는 진주에서 자란 엄홍섭이 있다. 그는 진주농림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가 한때 교직에 몸담았으나, 이내 그만두고 전업작가로서 열심히 작품 창작에 몰두했다. 경남지역 계급주의 문학이 한국 근대문학사의 흐름 가운데서 뚜렷한 자취를 남기게 된 것도 엄홍섭의 이바지가 컸던 까닭으로 보인다. 그는 평론 「農村과 文化」를 『每日新報』1942년 9월자에 실었고, 이어서 1943년에는 이른바 ‘부여신궁’에 힘을 도왔다는 사실을 기꺼이 밝히고 있는 ‘夫餘神宮御造營文化人奉任隊顔觸’을 『京城日報』1943년 11월 13일자에 올림으로써 부왜문학의 한 길을 보여준다.

다음은 연극계다. 부왜연극, 곧 ‘국민연극’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이른바 ‘신체제운동’이라는 지배책략을 지지하고 선전하기 위한 ‘국책극’과 한국인이 ‘황민’이 되자는 뜻을 담은 ‘국민극’, 그리고 태평양침략전쟁의 승리를 선동하기 위한 ‘결전극’에다 일본어를 쓴 ‘국어극’이 묶인다.¹⁸⁾ 유치진은 왜로의 대륙침략이 시작된 1937년 무렵부터 일찌감치 부왜 빛깔이 짙은 작품과 평론, 연출 활동을 하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예 내놓고 그것을 운몸으로 실천했다. 그는 현

17) 그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에 그 무렵의 인명록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조용만, 손진태, 김동환, 박종화, 유치진, 최재서, 김기진, 김용재, 김상용, 채만식, 이서구, 김영포, 이현구, 유진호, 주요한, 이태준, 이무영, 김동인, 이광수와 더불어 그는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잃은시기 끝자리에서 대표적인 부왜활동을 한 문인들이다.

『1945년 조선연감』, 경성일보사, 1944.

18) 서연호, 『식민지시대의 친일극 연구』, 태학사, 1997. 14쪽.

대극장 대표로서 '국민연극'을 힘써 퍼뜨렸고, 부왜연극계에서 커다란 문화권력을 휘둘렀다.¹⁹⁾ 1941년 3월 16일에 창립된 현대극장은 나라잃은시대 가장 충실하게 부왜극 활동을 한 단체다. 1회 공연은 그가 연출을 맡았던 「黑龍江」이다. 왜로제국주의자의 중국 동북성 침략을 정당화하는 의도를 담은 작품이었다. 이 작품 공연으로 유치진은 조선총독부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아,²⁰⁾ 그 뒤로 이어졌던 그의 승승장구를 예견케 하였다.

왜로는 '총후'의 '국민총력운동'을 드높여 '미영 격멸에 매진할 결의를 북돋운다'는 명분으로 1942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극경연대회'를 벌였다.²¹⁾ 거기서 유치진은 4막짜리 『藁の木』을 서향석 연출로 올려 작품상을 받는다. 이 작품은 대추나무를 사이에 둔 한 마을 두 가족이 그 소유권을 빌미로 애증을 나누다가 마침내 '만주', 곧 중국 동북삼성으로 함께 떠난다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고 있다.²²⁾ 제 나라 땅에서 농토나 소작지를 잃은 한국 농민의 유이민을 '만주낙토 전설을 위한 이주'라 하고 그곳을 한국인의 유토피아로 그려 부왜의 뜻을 분명히 했다. 충실한 '국어극'이며, '국책극'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따랐던 '신념극'이었던 셈이다.

유치진은 1945년 광복 직전까지 꾸준하게 부왜연극 활동을 거듭함으로써, 뒷세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를 따랐던 마산의 이광래나 박재성과 같은 젊은 연극인이 그들이다. 1943년 9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개최한 '제2회 국민연극경연대회'에서 이광래는 '황금좌' 소속으로 「北海岸의 黑潮」를 올리고 있다. 이 작품은 '애국'과 '성전'에는 신분 차이도 빈부차이도 없다는 세뇌공작을 위한 작품²³⁾이다. '星群'극단에서는 「新穀祭」를 한로단이 연출을 맡아 올

19) 유치진의 부왜극 창작과 연출 활동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꼼꼼하게 간추려져 있다. 18회 이상이나 되는 부왜연극 평론이 확인되고 있다.

서연호, 앞서 든 책, 115~122쪽.

김일영, 「국민연극 생성의 배경과 그 실상」, 『사람의 문학』, 도서출판 사람, 1995.

20) 서연호, 앞서 든 책, 90쪽.

21) 서연호, 앞서 든 책, 70~83쪽.

'국민연극경연대회'의 경과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다.

22) 『藁の木』 유치진 작·서향석 연출, 劇團現代劇場上演臺本.

23) 서연호, 앞서 든 책, 149쪽.

리고 있다. 1950년대부터 부산에서 오래도록 후학을 키웠던 그는 그에 앞서 6월에 『國民劇의 再檢討』라는 글을 『新時代』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경남의 대표적인 계급주의 연극인 신고송은 일본 '동지사'에서 활동하다, 1932년에 돌아왔다. 1935년 카프 해체 뒤 서대문감옥소에서 4년 동안 갇혀 옥고를 치렀다. 카프 해체와 관련된 검거선봉 탓이었을 것이다. 그런 뒤 전향을 하여, 1944년 10월 12, 13일 이들 동안 이른바 조선총독부의 계책에 따라 이루어진 '연극인총필기 예능제'에서 크게 활약을 했다. 그 무대에 집체 형식으로 올려진 「怒りの亞細亞」에서 유치진은 각본에서, 신고송은 연출에서 책임을 맡았다. 그는 부왜극 연출 활동을 벌여, 어두운 시대 막바지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이 무렵 박고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편의 신파작품을 내놓은 이가 있었는데, 이 또한 신고송으로 짐작된다.²⁴⁾

다음은 수필 쪽이다. 김소운은 능란한 일본어를 구사한 사람이다. 1920년대, 일찍부터 '내지문단'에 번역으로 이름을 떨쳤다. 현대시에서부터 민요, 동요, 민담, 삼국시대 설화 번역에서부터 많은 수필을 남겼다. 이런 그의 문필작업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바로 "내선간의 문화교류와 국어 보급에 방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평가"²⁵⁾된다. 1940년대에 들어서 '조선문인보국회'의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엮더니, 드디어 내놓은 부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학병 권유문'인 「父祖의 汚名을 一掃」를 『매일신보』에 실은 때가 1943년 11월 21일이었다.²⁶⁾

세계의 동란 - 문자 그대로 혈전이 거듭되는 이 때 장래의 역사의 한 줄 한 줄을 몸으로 써갈 제군을 생각할 때 나는 차라리 눈물겨움을 느낀다. 일신의 생명을 홍모에 부치고 전장을 치찰할 때 제군은 참다운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용감하게 나가 싸우라. 제군을 산 신(神)으로 우러르며 이 붓을 높는다.²⁷⁾

24) 김봉희, 「신고송의 희곡 선구자들 연구」, 『지역문학연구』 7집 경남지역문학회, 115쪽.

25) 정운현 엮음,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도서출판 없애지지 않는 이야기, 1997, 275쪽.

26) 같은 해 6월 8일에는 연합함대사령관 대장 '山本五十六'이 싸움터에서 죽자, 「山本五十六大元帥國葬の日」과 같은 노골적인 부왜시를 발표했다.

27) 정운현 엮음, 앞서 든 책, 276쪽.

이주홍은 근대 경남문학사에서 큰 작가다. 한국 계급주의 문학의 발전과 성장뿐 아니라, 오래도록 경남지역 문학을 위해서도 작품 안밖으로 이바지가 컸다. 게다가 뛰어난 화가로, 다재다능한 편집자로, 온갖 갈래에 걸쳐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대가적 풍모를 풍기는 몇 되지 않은 작가역. 그러나 능력 있는 예인의 한계로 말미암은 일인지 부왜활동에 있어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일문으로 씌어진 문학 작품에서는 부왜 빛깔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독특한 개성이 빛난다.²⁸⁾ 하지만 만화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섬나라 '내지'에서 그려진 '국책만화' 『大和一家』에 나란하게 식민지 '조선'에서 그려진 만화가 『金山一家』, 『明朗한 金山一家』였다. '내선일체', '황민화'를 위한 '국민총력운동'의 대중적 획책을 위해 마련되었던 그 연재만화 창작에 이주홍은 한 몫을 했다.

일본어를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내지문학 양식'까지 따라간 이도 있다. 그 가운데서 통영 시조시인 고두동의 경우가 남달랐다. 경남북지역 여러 '연초조합'에서 일하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는 '국어'로 된 시와 수필 뿐 아니라, '단가'까지 발표했다. 앞선 시기부터 『조선일보』와 같은 일간지에 꾸준히 시조를 실곤 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경남지역 시조문학의 전통 속에 녹아 있을 왜풍의 그림자를 엿보게 하는 사실이다.

4. 한글 문학과 부왜활동

한글로 된 부왜작품을 남긴 경남 문학인은 그리 숫자가 많지 않다. 이들은 이른바 '국민총력운동'에 따라 나라 안이 은통 '전시동원체제'로 바뀌었던 1940

이 책에서는 『每日新報』에 실린 이른바 '학병권유' 부왜문장들은 거의 모두 옮겨 실렸다. 옮겨 실으면서 어려운 한문투를 한글로 풀어쓰고 있어 읽기 쉽도록 했다.

- 28) 이주홍이 일문 작품을 주로 발표한 곳은 『東洋之光』이다. 1942년 1945년까지 모두 8면에 걸치는 수필 시, 단평을 발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콩트 『地獄案内』(『東洋之光』 12월호~1월호, 1943~1944)는 그 무렵 일본문단에서도 보기 힘든 환상문학으로 흥미를 끈다.

년대에 집중적으로 해당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나라잃은시기 전기간에 걸쳐 작품을 남기고 있는 이른바 '국어' 문학파는 다른 점이다. 한글로 부왜작품을 쓴 이들은 왜로 대륙침략전쟁의 엄혹한 현실 아래서 일정하게, 비슷한 시기에 전향·체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겪었을 선택의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문맥에 드러나고 있는 부왜 빛깔은 그대로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유치환은 작품 「首」를 『國民文學』 1942년 3월호에, 「前夜」를 『春秋』 1943년 12월호에, 그리고 「北斗星」을 『朝光』 1944년 3월에 실고 있다. 이 가운데서 부왜 문제와 연관되어 이제까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작품은 「首」였다. 이 시에 대한 임중국의 생각을 앞에 읊기고, 뒤에 청마의 회고문을 실는다.

유치환의 「수」(首) 역시도 거짓말 평가를 받고 있다. '작은 가성(街城) 네 거리'에 효수(梟首)된 그 시의 '비적'(匪賊)은 대륙침략에 항거하던 항일세력의 총칭이었다. 일제는 조선독립군을 선비(鮮匪), 공산 게릴라를 공비(共匪), 토착 항일민중을 토비(土匪), 항일 만주군벌을 병비(兵匪), 대도회(大刀會)와 같은 항일교단을 교비(教匪), 홍창회(紅槍會)와 같은 항일 결사원을 회비(會匪)라 하면서, 그 전체를 '비적'이라 총칭했다. 침략적 잔인행위의 고발이 아니라, 항일하다 죽어 호수당한 '머리 두 개'를 꾸짖은 친일시가 「수」(首)이다. 이 시가 극히 최근에 한 중견 평론가에게서 남성적이며, 시의 소재를 확대한 혁명적 업적으로 극찬을 받았다. 이런 거짓말들이 고쳐져야만 민족의 혼이 바로 선다. 혼이 없는 사람이 시체이듯이, 혼이 없는 민족도 죽은 민족이다.²⁹⁾

그러므로 그 시기에 있어서는 적이나 겨레로서 자의식을 잃지 않은 자라면 원수에 대한 가열한 반항의 길로 자기의 신명을 내 던지든지 아니면 희망도 의욕도 죄 버리고 한갓 반편으로 그 굴욕에 젖어 살아가는 두 가지 길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비굴하게도 그 중에서 후자의 길을 택한 것이었으며 그러면서도 그 비굴한 후자의 길에서나마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값없이 헛되게는 버리지 않으려고 나대로의 길을 찾아서 걸어 가기에 고독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은 비열한 위에 더욱 가증스런 자기 합리화의 수작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³⁰⁾

29) 임중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6~7쪽.

30) 유치환, 『구름에 그린다』, 신흥출판사, 1959, 22쪽.

유치환의 솔직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진술이다. ‘악을 판 자도 위선자였고 선을 판 자도 위선자였다’라는 책 모두에 올린 경위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껏 논의 되지 않았던 작품 「北斗星」에도 나타난다.

北熊이 우는/北方 하늘에/耿耿한 일곱별이/슬픈 季節이 거러/저 - 廣野
에/不滅의 빛을 드리우다.

○

어둠의 洪水가 구비치는/宇宙의 한복판에/홀로선 난/한날의 푸른 별이어니!

○

보아 千年/생각해 萬年/千萬年 흐른 꿈이/내맘에 薔薇처럼 고이 피다

○

구름을 밟고/기러기 나간 뒤/銀河를 지고/달도 기우러

○

밤은/어름같이 차고/상아같이 고요한데/우러러 斗柄³¹⁾을 재촉해/亞細亞의
山脈³²⁾에서
東方의 새벽을 이르키다.

-「北斗星」³²⁾

다작으로 한결같았던 청마다운 부풀림과 거친 맛이 잘 드러나는 시다. 첫 도막과 마지막 도막 사이에 말할이의 개인 심사를 올려, 교묘하게 구체적인 부왜 빛깔에서 비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그 두 도막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동아공영권’을 위한 ‘성전’이라는 열개가 끌어잡고 있다. “두병을 재촉해”, “동방의 새벽을 이르키다”가 뜻하는 바를 알아채는일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정작 청마의 부왜와 관련하여 더 무거운 문제는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에 머물지 않는 데 있다. 무엇보다 그가 1940년 가솔을 거느리고 통영을 떠나 ‘移住’하여 5년 가까이 머물면서 ‘總務’로 일했던 중국 길림성 연수현 ‘自由移住集團 嘉信興農會’의 성격과 그 실제 해명이 관건이다.

이원수 시인은 보다 뚜렷히 한글로 된 부왜시를 남기고 있는 경우다. 어린 소년 화자의 입을 빌어 잘 짠 한 편의 부왜시가 「志願兵을 보내며」다.

31) 두병 : 북두 칠성을 국자 모양으로 보았을 때, 그 자루가 송장을 파내어 극형을 가하던 일.

32) 『朝光』 3월호, 조광사, 1944, 70~71쪽.

지원병 형님들이 새어나는 날은/거리마다 국기가 펄럭거리고/소리높히 군가가 울려퍼졌습니다.//정거장, 밀리는 사람들에서/손뚱쳐 경례하며 차에 올르는/씩씩한 그얼굴, 웃는 그얼굴.//움직이는 기차에 기를 흔들어/허리굽은 할머니도 기를 흔들어/「반자이」 소리는 하늘에 찾네.//나라를 위하여 목숨 내놔요/전장으로 가지려는 형님들이여/부대부대 큰공을 세워주소.//우리도 자라서, 어서자라서/소원의 군인이 되겠습니다./굿센 일본 병정이 되겠습니다.

- 「志願兵을 보내며」³³⁾

그도 다른 경남지역 계급주의 문학인들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 중반부터 전향의 길을 걸어, 1940년대에 이르러 확실한 전향의 표지를 세상에 들내고 있는 셈이다. 이제 아래서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그의 다른 부왜수필을 보인다.³⁴⁾ 노골적이고도 깊은 공감에서 우려나온 부왜문장이어서 읽는이를 놀라게 한다.

어쩔지 모르게 아름다운 歷史와 聖地로서의 빛을 發하고 있는 山水明窟 한 부여파에 다녔다. 지난 그날의 빛나던 文化도 애근는 滅亡의 悲哀도 옛 記錄에만 남겨노코 千餘年 동안을 寢할때까지 寢해버린 이파에 황송하웁게도 應神天皇, 齋明天皇, 天智天皇, 神功皇后의 네 神께서 御鎮座되옵실 宮幣大社 夫餘神宮이 御造營되는 것은 半島의 자랑이요 二千五百萬民衆의 기쁨인지라 우리도 이 神宮 御造營에 赤誠을 다하여 광이를 들고 땀을 흘리며 밤을 새며 차려온 것이다.

- 줄임 -

이 고마우신 神宮 御造營의 소식을 듣고 二千五百萬民衆이 누구나 여기 땀을 흘려 工事に 힘을 수해보겠다는 熱誠을 안가질 이 업술 것이며, 그 마음으로 여기 와서 奉仕作業하고 간 이 또한 만헛을 것이다.

33) 『半島의 光』 8월호(언문판), 朝鮮金融聯合組合會, 1942년, 37쪽.

『경남도민일보』(2002. 3. 5)에 발굴자료로서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다.

34) 이 유형의 작품과 관련된 다른 논의의 글을 한 군데만 옮겨둔다.

“부여는 이른바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를 상징하기 위해 다양한 가공을 시도했던 이른바 ‘내선일체의 성지’였다. 일제는 ‘내선일체’ 이데올로기의 강화수단으로 1941년 ‘부여신궁’을 짓고, 그 공사에 문인들을 동원했다. 부여를 내선일체의 성지로 다룬 문인들의 글도 부지기수다. 백철의 「내선유연(內鮮由緣)이 깊은 부소산성」(『文章』, 1941. 1)을 비롯하여, 박영희의 「부여신궁어조영 근로봉사에 참여하야」(『춘추』, 1941. 4), 이광수의 「부여행」(『신시대』, 1941. 7), 주요한의 「부여의 꿈」(『신시대』, 1941. 7)등이 대표적인 ‘부여찬가’에 해당한다.”

한수영, 「고대사 복원의 이데올로기와 친일문학 인식의 지평」, 『실천문학』 봄호, 2002. 3.

우리도 奉仕作業에 參加할 수 잇섯슴을 感謝하는 同時 여기 한덩이 돌이 라도 한 부삼의 흙이라도 파고 싸허 올리는 榮光을 가슴 깊이 느끼었다.

作業을 마치고 史蹟見學次로 夫餘山 옥어진 술사히 서늘한 바람이 항결 돌고 잇는 산길을 거닐며 이 神宮이 完成되여 옛날 丙鮮交誼에 가장 고마우 신 御軫念이 게음신 應神天皇外 세분 祭神게음서 御鎮座하시는 날, 이곳의 光輝가 半島江山 방방곡곡에 빠칠 것을 맘속에 그려보며 크다란 感激을 느끼었다.

- 「古都感懷 - 夫餘神宮御造營 奉仕作業에 다녀와서」 가운데서³⁵⁾

권환은 경남 계급주의 문학뿐 아니라, 한국 계급주의 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시인이다. 그가 카프 해체에 따라 옥고를 치르고 풀려났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권환의 전향은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내선일제'의 깃발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나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나 지병을 핑계로 버텼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부애작품은 빛깔이 엷다.³⁶⁾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세태를 따라 부애잡지나 신문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1944년에 나온 시집 속에 실렸다는 특징이 있다.

갈가마귀 한떼 휘 날러가다/山마을 감나무술 위로//힘찬 波紋이 이어나다 /맑은 가을 하늘에/개가 궁궁 짓다//어머니는 또 생각하였다/면 남녘하늘 날러다니며/마음대로 太平洋을 짓밟는//勇敢한 黃鸞의 아들들//大空의 아들들 그는 생각한다/날러가는 새집승을 볼때마다

- 「荒鷺」³⁷⁾

35) 『半島の光』11월호,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3, 14~15쪽.

36) 권환은 시집에 실린 해당 작품말고는 「花郎徒 劇評」을 『每日新報』1944년 10월 14일자에 한 편 실고 있을 뿐이다.

37) 권환, 『倫理』, 성문당서점, 1944.

본디 시집 『윤리』는 두 차례 나왔다. 1944년 12월 15일과 같은 달 25일에 나온 것이 그것이다. 앞서 나온 것에는 '저작발행자'로 임화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25일에 나온 두 번째 시집에는 권환의 왜로성이름인 '權田煥'을 '저작자'로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맨 뒤쪽에 '경성제대부속도서관사서'로 일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해적이를 간략하게 적고, 본문 교정까지 몇 개 올리고 있다. 이러한 두 번에 걸친 시집 『倫理』의 간행은 이제껏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그런데 출판이 어려웠던 그 시기 짧은 10일 사이에 두 번에 걸쳐 한글로 된 시집 간행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사정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인가. 재미있는 생각거리다. 다만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은 권환의 한 몸 의탁과 시집 간행에 오랜 친구 임화의 힘이 결정적이었고, 권환의 취절에도

平安히 가시옵소서/北녘 「튼드라」가 오죽이나 추우렷가//平安히 가시옵소서/南녘 「장글」이 오죽이나 더우렷가//몸 고이 조심 하시옵소서/길은 멀고 背囊은 무거운 몸이오니/나라의 소중한 몸이오니//부대 도라오질랑 마시옵소서/높은 凱旋歌가 山河를 덮을때까진//넋가 부질없이 기다리오렷가/나라爲해 가시는임을

- 「送君詞」

그사람 몸도 억세고 튼튼하더니/거짓말아니라 쇠방앗공이도 갈더니//키도 장승처럼 컷거니와/두눈엔 불방울이 펄펄날더니//그래도 늙은 홀어머니앞엔/洋색기처럼 順하되順하더니//좋다던 두볼을 맛대부비고/미웁다던 이빨로 꺾겨 심으려하더니//누구나 한번은 죽고마는것이나/나라위해 죽는게 얼마나 神聖하냐고//말버릇처럼 짓그리더니/인제 빙그려 웃으렷다 그대의英靈은!

- 「그대」

경남지역 문학인 가운데서 김정환이 특이하게 회곡에서 부왜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의 경우 흔히 ‘일제 말엽에는 절필하여’ 절조를 지킨 작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30년대를 앞두고 한 무렵에 작품 발표를 시작한 그는, 이른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으로 전시동원체제의 수립이 획책되었던 1938년부터 1943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작품이 전향적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은, 이미 암시된 바 있다.³⁸⁾ 그 가운데서 「隣家誌」는 그 동안 이름만 알려져 온 작품이다.³⁹⁾ 1943년 9월 『春秋』에 실린 이 작품은, 그 뒤 여러 차례 이루어진 김정환의 해적이에서는 늘상 빠져 있었다. 두 부분만 옮겨본다.

①樂三 벌써 밥하냐? 그런데 뇌 이것 좀 봐주게. (손에 든 조이쪽지를 내주면서) 눈 뜨고도 몬보는 당달이 (청맹판이)가 돼서 져장……

西分 (헝추치마에 손을 닦고서 조이쪽지를 받아 들고 보더니) 아드님한테 운기네요. - 面事務所에서 勤勞奉仕隊에 나오라는 통지입니다.

樂三 머, 勤勞奉仕隊? 정신 빠진 사람들 양이가! 來日 도레면은 志願

임화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38) 김기호, 「김정환 초기소설과 그의 전향에 대한 고찰 - 작중인물의 현실대응의 변모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집, 한국외대 사범대 한국어교육과, 1991.

39) 임종국, 앞서 든 책, 481쪽.

兵에 나갈건데 무엇 나갈 틈이 있는강. 西分아 우리 개풍이 志願兵 나가는 것 너도 알지 안나. 이담 大將이 되면 뒤사 말리겠나. 너도 봐라 이것저것 준비할라 나갈 수 있겠나.

西分 암마 면에서 잘 모르고 그랬겠지요?

樂三 에이 실업은 놔들!

- ② 西分 일 많이 하능기 나쁜기오? 놀고 묵는기 빙신(바보)이지 - .
 次寬 조런 방정맞은 넌 조동이 켜 것 좀 봐라! (西分이를 때릴려는 듯 이 앞인 채 손을 들먹 들먹하며 겨눈다)
- 西分 (二順이 등뒤로 피한다)
 二順 와 또 이래 쌍능기오? 지발 좀 꺾잔해지소. 어째 남자가 대서 그만 일도 모르능기오? (힘을 더욱 가다듬어서) 옛적버텀 난리가 나문 내담없이 남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수자리를 직히는 법이고, 여자는 손톱이 달투록 일을 해서 또한 나라와 집을 직히는 것이 아니오? 百濟階伯將軍이애기 당신도 언재 하지 않았소?
- 次寬 야 - 이년들이 제복 나를 혼계 할라카는구나. 주지넌은 연들 같이를!

이 작품이 문제적인 것은 첫째, 여러 문학 갈래를 넘나들었던 김정환으로서도 유일한 희곡작품이라는 데 있다. 둘째, 그가 겪었을 삶의 어려움은 짐작하지만 부왜작품이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많지 않을 작품이라는 점이다. 셋째, 그의 특장인 경남지역말을 여느 작품보다 돋보이게 쓰면서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병 '開東'(22살)을 혼인시켜 이른바 '성전'에 내보내려는 아버지 '白樂三'(탕전장사. 노인)과 '개동'의 아내로 내심 점찍고 있었던 '서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방차돌'(생선장사), 어머니 '이순'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인극이다. 지원병 가족을 힘써 도와줘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담음으로써, 이른바 '총후'의 '국민총력운동'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을 일깨우는 '국책극'이 되고 있다.

5. 한문 문학과 부왜활동

이제껏 근대문학 연구에서 바깥으로 밀려나 다루어질 기회가 드물었던 자리

가 한문학이었다. 근대 한문학은 근대 민족국가의 국가언어인 한글로 된 문학이 아니라는 까닭으로 자격이 모자라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는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후기근대가 뒤섞여 중층적 양상을 만들어 온 데다, 이민족에 의한 민족예속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안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심 언어를 문제 삼아 변두리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을 ‘근대’문학에서 빼버리는 것은 우리 문학 영역의 실상을 많은 부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⁴⁰⁾

지역문학 차원에서 조선통독부가 저질렀던 부왜유림 육성 술책과 그에 따라 부화뇌동했던 문학은 중요한 부왜 양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치에 이어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저들의 효율적이고도 영구적인 지배를 위해 뜯어고치고자 했을 때, 한국사회를 움직였던 가장 주요한 심성과 생활규범을 이루었던 유교계에 대한 지배와 탄압은 집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각별히 ‘동아시아’ 삼국의 공통되는 정서적·윤리적 고리로서 ‘공자사상’을 끈질기게 부추기고, 그를 빌미로 ‘대동아공영권’의 이념적 바닥을 다지고자 했던 책략은 일찍부터 비롯된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술책에 따라 ‘經學院’에 뒤이어, 1932년 ‘朝鮮儒敎會’가 만들어진다.

최고 높은 ‘宗道正’으로 대표적인 부왜역적 가운데 하나인 윤용구를 둔 곳이 ‘朝鮮儒敎會’였다. 이 단체의 ‘朝鮮儒敎會創立同志代表者名簿’에 이름을 올린 이가 온나라에서 1171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738명이 경남지역 사람이다.⁴¹⁾ 그리고 이 단체는 이른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시작된 다음 해인 1939년 10월에는 그에 발맞추어 나머지 부왜유림 단체들과 함께 ‘朝鮮儒道聯合會’로 통합된다. ‘帝國畢勝’을 위하여, ‘國民精神의 團結力을 確固’히 하고, ‘皇道 정신에 醇化된 儒道를 振作시키기 위한 노력’을 내세웠다.⁴²⁾ 왜로들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지배계층이자 지식계층이며, 여론주도층이었던 이들에 대한 ‘사상 공작’을 꾸준히 꾀했던 셈이다.

40) 따라서 글쓴이는 아래 글에서 국가적 기획에 따른 근대 반성과 성찰을 위하여, 지역문학 연구에서는 과감하게 변두리 갈래로 밀려나 있던 근대 한문학이나 가사와 같은 양식을 연구 범위에 끌어넣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 『한국시학연구』 6집, 한국시학회, 2002.

41) 『朝鮮儒敎會創立宣言書及憲章』, 31쪽.

42) 朴澤相駿, 「創刊に際して」, 『儒道』 창간호, 朝鮮儒道會, 1944, 1~2쪽.

그들의 매체, 곧 『經學院雜誌』, 『斯文學』, 『日月時報』, 『時中』, 『彰明』, 『儒道』와 같은 곳에 실렸던 많은 경남지역 인사의 한문학 작품뿐 아니라, 낱책들은 부왜작품이라는 관점에서 살펴져야 할 일이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두 종류의 부왜 한시집에 실린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1937년 경학원에서 낸 『聖戰誠詩集』이다. '聖戰'이란 왜로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中日戰爭', 곧 중국대륙침략전쟁을 뜻한다. 일찌감치 경학원에서는 부왜시문들을 힘껏 가져다 바치고 있었던 셈이다. 많게는 한 도에서 54명이, 적게는 1명이 작품을 실고 있다.⁴³⁾ 시의 형태는 칠언절구가 대종이고, 칠언율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경남에서는 모두 32명이 작품을 실었다. 그들 가운데서 경남지역 사람 것으로 맨 처음 실린 부산 구주회의 것을 보인다.

앞서 황군이 북평을 향한다고 말하더니/마침내 호드기와 북소리가 남쪽
군영에서 울리도다./말을 들겨할 때에 대적할 자가 없더니/비행기 울리는
곳에 다시 횡행하도다./명령대로 沙場 만리를 다닐 수 있어/嵩關에 천추토록
불후의 이름을 남겼도다./한몸된 臣民이 하례의 뜻을 다루고/집집마다
처마 끝에 일장기가 밝도다.

- 구주회⁴⁴⁾

대부분의 시들이 '爲國安民'을 위한 '충의'로 용감하게 싸워, '열사'의 명예를 '탄년'까지 있도록 하라는 권유와 '병정'에 대한 찬양, 장차 '중국을 반성하게' 하리라는 전쟁 명분, 왜왕 곧 '천황'의 어진 덕을 기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에 옮긴 구주회의 것도 그런 경향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왜군의 용감함과 승리를 감격어린 목소리로 그렸다. "한몸된 신민이 하례의 뜻을 다루고/집집마다 처마 끝에 일장기가 밝"다는 데서 이른바 '내선일체'와 '황민화'는 완전히 이루어졌다.

43) 도별로 실린 이들의 수를 해어보면 아래와 같다.

경기도 17명, 충청북도 14명, 충청남도 25명, 전라북도 54명, 전라남도 1명, 제주도 20명, 경상북도 33명, 경상남도 32명, 황해도 16명, 평안남도 22명, 평안북도 76명, 강원도 18명, 함경남도 12명, 함경북도 18명이 그것이다. 여기가 경학원 간부 29명을 더해, 모두 387명이 작품을 실었다.

44) 『聖戰誠詩集』, 경학원, 1937, 44쪽.

옮긴이는 부산대 한문학과 김성진 교수의 도움을 얻었다.

『祝徵兵制實施』는 1943년 징병제 실시와 더불어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낸 한 시집이다. ‘徵兵의 義務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머리에 밝혔다. ‘各道 儒林들이 투고한 수천수 가운데서 160수만 골라’ 한 책을 엮어, 이른바 ‘皇恩을 노래하고 그 惠澤을 永久히 紀念’⁴⁵⁾하겠다는 극진한 뜻으로 펴낸 책이다. 모두 160명이 167편에 이르는 작품을 올리고 있다. 거의 모두 왜식으로 갈아치운 이름자를 쓰고 있는데, 경남지역 문인은 5명에 머물러 그 수에서는 완전히 적다. 이 가운데서 ‘德田在旭’이라 이름을 뜯어고친 이의 오언시를 보기로 한다.

나라에 마땅한 징병 있으니/국민 역시 병정이 되고자 하노라./성스러운
은혜는 바다같이 크노니/모두 중국 전선병으로 나아감이 옳도다
- 함안군 함안면 봉성동 덕전재옥⁴⁶⁾

왜로의 징병제도에 뜻을 함께 하면서 이른바 ‘천황’, 곧 왜왕의 ‘聖恩’을 갚자는 뜻이 드뭙다. 이러한 부왜한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은, 이제껏 학문공동체의 관심 바깥에 놓여 있었던 탓에 사실 확인부터 어려움이 크다. 문헌 위기에 있는 자료 또한 쉽게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근대 경남지역 유림에 대한 접근은 이른바 ‘신식문학’을 한다고 해서 그 무렵 전경화되어 있었던 한글 문학자들에 견주어, 보다 넓고 단단하게 가로놓여 있었던 부왜인의 바탕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어서 그 의의가 크다.

4. 마무리

그 앞시기의 오랜 국권회복 활동은 두고라도, 나라잃은시기에 광복활동을 했다 일컬을 수 있는 이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먼저 돌아가신 분과 살아 남았던 분으로 그것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광복활동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이다. 이들의 첫 자리에는 순사(殉死)한 이가 놓인다. 광복전쟁의 전후방에서

45) 山本權一郎 역음, 『祝徵兵制實施』, 朝鮮儒道聯合會, 1943, 1쪽.

46) 山本權一郎 역음, 앞서 든 책, 38쪽.

목숨을 잃었던 술한 사람이 이에 들 것이다. 두 번째 자리는 원사(冤死)한 이다. 광복활동 과정에서 오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동료로부터 죽임을 당한 분이다. 세 번째 자리에 절사(絶死)한 분이 놓인다. 깨끗하게 속으로 절조를 지키다 돌아가신 이다.

둘째, 광복 뒤에까지 살아 삶을 마쳤던 분이다. 그 첫 자리에 옥고를 겪었던 이가 놓인다. 예사사람이 겪어내기 힘들 여러 해 동안의 고초를 몸소 겪고 이겨낸 이들이다. 두 번째 자리에 광복활동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입거나, 거의 폐인이 되어버린 분이 놓인다. 세 번째 자리에는 평생 앞뒤가 깨끗한 이가 놓인다. 경남지역에서만 하더라도 이 여섯 가운데 어느 한 자리에 들어 모자람이 없을 이름이 어찌 천, 이천에 머물겠는가. 그러나 경남문학인 가운데서는 위에 든 자리 가까이 올려다 놓을 이름을 요량해보기가 쉽지 않다.

모름지기 경남지역 근대문학인 가운데서는 그들 가까이에 올려 세울 만한 이들이 없었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894년 갑오역변과 경술국치를 거치면서 총렬사 동백숲에다 깊은 울음을 묻었을 통영지역 지사들의 문학이 없을 수 없다. 1910년 경술국치를 거쳐 1920년대 민족·반제 활동 과정에서 순사하거나 원사한 경남 문학인이 어찌 한 둘에 그칠 것인가. 매음녀로 스스로를 꾸민 뒤 중국 상해로 건너가, 조선의용대 여자대장으로 싸우다 순사한 동래 박차정 열사의 작품은 작은 보기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1930년대 중반 소설을 위해 밤새 연필심을 써처럼 깎아내렸을 지하련의 오라버니 이상조와 그가 남겼을 소설을,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여 묻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나라잃은시기 광복항쟁의 나날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의 싸움을 거듭하면서 나라 안팎 그 어느 자리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잊혀져 갔을, 적지 않은 문학인을 짐작해 본다. 경남지역의 부왜문학에 대한 연구를 다그치는 까닭은 한 때의 흠을 내세워 그에 관련된 이들의 문학 모두를 물어버리기 위한, 집단적 과학의 도구로 끌어다 쓰기 위한 뜻이 아니다. 문학에서나 삶에서나 그들보다 화려하지는 못했을 마땅 보다 몇몇할 문학이 있고 삶이 있다면, 그부터 제 자리를 찾도록 해야 할 일이라는 성찰과 결의를 거듭 드러내는 한 방식일 따름이다. 지역의 부왜활동과 부왜문학에 대한 조사·연구가 깊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경상남도공립사범학교 교우회, 『飛鳳之緣』 1집, 경상남도공립사범학교, 1925.
경상남도공립사범학교학우회 문예회, 『學友文藝』 5집, 경상남도공립사범학교, 1926.
- 권환, 『倫理』, 성문당서점, 1944.
- 김명식 엮음, 『一堂紀事』, 일당기사출판소, 1927.
- 김정환, 「隣家誌」, 『春秋』 9월호, 조선춘추사, 1943.
-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교우회, 『교우회보』 7집, 동래공립보통학교, 1929.
- 문명기, 『雲巖齋帖』자가본, 1938.
- 민병욱, 『한국 희곡사 연표』, 국학자료원, 1994.
- 신익균, 『戀松集』, 자가본, 1936.
- 유치진, 『粟の木』, 劇團現代劇場上演臺本.
- 유치환, 「北斗星」, 『朝光』 3월호, 조광사, 1944.
- , 『구름에 그린다』, 신흥출판사, 1959.
- 이주홍, 「地獄案内」, 『東洋之光』 12월호 - 1월호, 동양지광사, 1943 - 1944.
- 이원수, 「志願兵을 보내며」 『半島之光』 8월호(언문판), 朝鮮金融聯合組合會, 1942.
- , 「古都感懷 - 夫餘神宮御造營 奉仕作業에 다녀와서」 『半島之光』 11월호(언문판),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3.
- 정운현 엮음,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도서출판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 『朝鮮紳士大同譜』, 조선신사대동보발행사무소, 1913.
- 『朝鮮紳士寶鑑』, 조선문우회, 1914.
- 『慶尙北道 職員, 公職者 團體役職員 名簿』, 경상북도, 1927.
- 『朝鮮紳士錄』 조선신사록간행회, 1931.
- 『朝鮮儒敎會創立宣言書及憲章』, 조선유교회, 1933.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조선총독부, 1937.

『聖戰誠詩集』, 경학원, 1937.

『소화15년 조선인명록』, 경성일보사, 1940.

山本權一郎 엮음, 『祝徵兵制實施』, 朝鮮儒道聯合會, 1943.

『1945년 조선연감』, 경성일보사, 1944.

2. 2차 자료

김 철, 「순수의 정체 - 붓과 칼의 일치」, 『청산하지 못한 역사』, 청년사, 1994.

김기호, 「김정환 초기소설과 그의 전향에 대한 고찰 - 작중인물의 현실대응의 변모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집, 한국외대 사범대 한국어교육과, 1991.

김봉희, 「신교송의 회곡 선구자들 연구」, 『지역문학연구』 7집, 경남지역문학회, 2001.

김일영, 「국민연극 생성의 배경과 그 실상」, 『사람의 문학』, 도서출판 사람, 1995.

려중동, 『한국역사용어』, 시사문화사, 1986.

박경수,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의 일어시에 나타난 민족적 정체성」, 『우리말글』 21집, 우리말글학회, 2001.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 『한국시학연구』 6집, 한국시학회, 2002.

서연호, 『식민지시대의 친일극 연구』, 태학사, 1997.

이장렬, 「일문으로 된 한국근대문학 경남문학인의 문헌 족보기」, 『지역문학연구』 7호, 경남지역문학회, 2001.

『일본어로 표기된 한국인 작품목록(1)·(2)』, 『문학과비평』 가을·겨울호, 문학과비평사, 1990.

임종국, 『親日文學論』, 평화출판사, 1966.

_____,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차민기, 「박석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 7집, 경남지역문학회, 2001.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研究』, 국학자료원, 1997.

한수영, 「고대사 복원의 이데올로기와 친일문학 인식의 지평」, 『실천문학』
봄호, 2002.

朴澤相駿, 「創刊に際して」, 『儒道』 창간호, 朝鮮儒道會, 1944.

三田芳夫 엮음,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國民總力運動聯盟, 1945.

大村益夫·任展慧 編,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 プリントピア, 1984.

任展慧, 『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學の歴史』, 법정대학출판국, 1994.

布袋敏博,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의 서지학적 연구」, 『文學思想』, 4월호, 1996.

大村益夫·布袋敏博,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 綠陰書房, 1997.

<Abstract>

Kyungnam Regional Literature and Pro-Japanese Activities under Imperialism

Park, Tae-Il

This writing is for making a general summary of Pro-Japanese activities that are shown at modern literature in Kyungnam region, which is mainly focused by works from 1938 to 1945. To reach this goal, languages used in works could be considered. That is, there are three kinds of Pro-Japanese literatures written in Japanese, Korean and Chinese letters.

Pro-Japanese literatures in Japanese were written by critics such as 조현연 · 정인섭, play writers such as 유치진, essayists such as 김소운, novelist such as 이주홍, and poets such as 고두동. Pro-Japanese literatures in Korean were poems of 유치환 · 이원수 · 권환 and a play of 김정환, who was novelist. Last type of literatures show Pro-Japanese literature of Confucians with two anthologies, which were composed of admiring poems for Japan's invasion toward China, so-called Sino-Japanese war.

The study of Pro-Japanese literature in Kyungnam region is a way not to blame Pro-Japanese writers, but to find out desirable works and writers, and get social sympathy. It is wishful that many writers who have lived hard time of Modern Korea would cultivate interests continuously.